“ 크리스천 지성인 ”

■ 이종윤 원로목사

지성인과 지식인은 구별된다. 지성인은 지식을 갖춘 전문인 일뿐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아는 지혜인이다.

지성인은 개인은 물론 민족사회의 안개를 헤치는 등불이 되어 인간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용을 한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인간의 교만한 지식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침을 찔러 그 힘을 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성의 비판작용이라 한다.

대학사회나 지식인에게 비판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학문은 더 이상 학문으로서 가치를 상실케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판과 비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은 부정과 파괴를 위한 것이라면 비판은 선과 악, 거룩함과 속된 것, 아름다움과 추함,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는 명철(明哲)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 작용은 지식활동에 속했다기보다 지성작용에 속한다.

비판을 통해 악과 거짓이 추방되고, 굽은 것이 곧게 펴지는 것이기에 학문연구에서 비판 작용이 결여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다. 지성의 비판 작용을 학문이 바탕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정당성에 있지 않고 진실성에 있다. 진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성사회는 그러므로 정당성보다 진실성을 강조하고, 지성인은 사실과 진리만을 주장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이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낭만과 청춘이라는 특권 아래 숨겨진 감정적 흥분과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찾고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히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고 질문할 줄 아는 자유자다.

편견에 얽매인 개인이나 사회는 진리에 접근하기 보다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려는 악습에 빠지는 이는 지성인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반지성적, 파괴적 비난들은 학문 활동을 고체화시키고 진리를 찾는 일을 방해할 뿐이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진리 편에서야 하고 자신의 욕망도 자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와 진리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변수와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를 동시에 보되, 변수에서 상수를, 상수 속에서 변수를 읽는 양식(良識)을 가져야 한다.

지식과 감성 즉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성숙한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인간상을 지성인이라 부른다. 냉철한 지성과 온화한 감성을 겸비하고, 이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보수와 혁신이 높은 차원에서 승화되어 성숙한 전인격적 차원의 능력을 갖되 미래에 대한 부단한 모험정신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의지로 현재뿐 아니라 급격히 변천하는 지식과 환경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창조적 인물이 지성인이다.

거기에 더하여, 크리스천 지성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화해, 관용과 덕을 쌓되 미래 소망을 가진 인물이다. 학문의 지고성과 이데올로기적 확신을 상대화 할 수 있는 영적 성숙성을 지향하는 크리스천 지성인은 오늘의 문제 이해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세 또한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크리스천 지성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국장로신문 [1369호] 2013년 6월 1일에서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2부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새벽기도회, 각 교육부서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역 및 교인 확인 절차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방역 체크를 위해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만 운행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주차 후, 지하 1층 계단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하 1층 만차시에는 운전자는 지하 1층에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지하 2층 또는 3층에 주차 후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올라와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221_sermon.jpg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주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뒤를 따르는 서울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 · 홍성임(말라우), 이재율 · 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 · 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제31권 제8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1년 2월 21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 ”

■ 고전 7:1-7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현상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아제한은 한때 세상의 풍조였고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가정 바로세우기에 몰입한다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현상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CF)의 가르침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단지 신앙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의 최고 기준점을 성경에 둘 것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1-5와 로마서 12:2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유행과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함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 기준점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율법 없이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익숙하게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방편임을 명확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물론 성도들도 그리스도안이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성적 문란의 풍속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살아야야 할 근본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용을 상세하게 강론하기 전에 먼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명제를 전하면서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가슴판에 깊이 새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지 않으면 신앙인의 삶 자체를 논할 수 없습니다.

2. 구별된 가정을 세워라

가정의 주인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역시 목사나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놓여 있듯이 성도들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물적 본능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는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가정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원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구별된 가정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라야 합니다. 아담이 이를 인정하였고 하와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타락하여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이를 회복하고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그 주권을 다시 주인이신 주님께로 되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바른 구별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벧전 3:1-2에서 남편을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말이 아니라 아내의 정결한 삶을 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벧전 3:1-2) 그러나 이것은 결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지 않은 자들과의 결합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맺는 말

배우자도 교회의 목사도 만점짜리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리더십을 목사 한 사람에게 두지 않고 복수의 리더십에 두어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함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 혹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혹은 저주받을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멍에를 함께 지어서는 안 된다.’(WCF 24장 3항)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장석남 목사	서문석 장로
Ⅲ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70: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37(시 9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3(2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7: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2)"···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204(37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41:2-3 ····· 인 도 자
찬 송 ····· 383(433) ····· 다 함 께
기 도 ····· 김성주 집사
성 경 ····· 대하 20:1-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 설 교 자
* 찬 송 ····· 542(340)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 Ⅰ부: 조정옥 권사 Ⅱ부: 김남옥2 권사
성 경 ····· 전 12:7-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고전 7:4)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명	명	명	명	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내니이까?

주님의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주여 내니이까?"라고 반문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토록 병들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 중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내니이까?"라고 묻는 유다에게 "네가 말했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회개가 없었다니 나지 않았더면 좋았을 인간이다. 부패한 양심과 거짓말로 위선의 탈을 쓰고 "내니이까?"라고 말하는 대신 차라리 "주여 나입니다"하고 엎드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감춰 보았자 창자까지 쏟아놓고 말 인간이거늘 언제까지 "내니이까?"로 발뺌만 하고 책임전가만 할 것인가.

"주여, 정직한 영을 주사 참말만 하게 하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